

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학업 성취도 I는 미이수 '유의'

고교학점제, 성적이 낮거나
이수 학점을 못 채우면
졸업을 못하나요?

고1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. 저희 아이는
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데 성적을 낮게 받거나
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
궁금해요.

올해 고1부터는 고교학점제를 적용받으며, 졸업 요건이 달라집니다. 3년간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총 192학점 이수해야 합니다. 학점은 쉽게 말해 수업 시간입니다. 50분짜리 수업을 16회 받으면 1 학점입니다. 수강 과목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출석률이 2/3 이상이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단, 교과 수업은 출석률 외에 학업성취율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. 고교학점제에서 교과 평가는 상대평가인 5등급과 더불어 ‘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’를 평가하는 성취평가(A~E 5 단계 또는 이수 여부 P로 표기)도 함께 이뤄집니다. 이 성취평가를 기준으로 ‘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’

라는 체제를 운영합니다. 각 과목의 교육 목표에 따라 학생이 알아야 할 내용과 범위에 최소한으로 도달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. 2025학년부터는 과목별 학업 성취율이 40% 미만(성취도 I)일 경우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, 즉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판단해 해당 과목을 ‘미이수’를 간주합니다. 미이수 과목이 많으면 상급 학년으로 진급 하지 못하거나 고교 졸업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. 단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충 지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
서울 진관고 김지영 교사는 “일선 학교에서는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위해 ‘예방 지도’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. 학습 멘토링을 비롯한 방과 후 지도, 온라인 과정 운영 등으로 보충 지도에 이르기 전에 학생이 학점 이수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”라고 설명합니다.

취재 김은진 리포터 lkemer@naeil.com 도움말 김지영 교사(서울 진관고등학교)